

위협받는 인류의 생존... “지구 온도를 낮춰라”



■ 프롤로그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폭염과 폭설,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전세계는 탄소중립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120여개 국가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추진중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수입품 등 모든 항목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환경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구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하고 파리 협정 채택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 위원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온실가스 총량대비 40% 감축으로 기존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및 상용화 국민 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해서 경제적 부담과 편의,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 제주도의 목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제주도는 앞으로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원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선박)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제주지역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건물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 건물에너지 자급 자족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다.

농수축산업의 스마트화 진행과정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수축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지역 산림과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로 탄소흡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 올해 추진 사업

제주도는 우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총

2170억원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2030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6개(건물, 공공·기타, 수송(도로), 농축산,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부문·28개 세부 감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도민편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 폐기물 부문에 641억원 ▷CFI 2030에 따라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 등 수송(도로) 부문 1034억원 ▷공공·기타부문 사업으로 500만 그루 나무심기 및 연안벨트 바다 숲 조성 사업 등 420억원 ▷농축산부문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충 및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 사업 72억원 등이다.

또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2022년 시행에 맞춰 제주형 전략을 추진한다.

지구촌, 기후변화 따른 폭염과 태풍 등으로 몸살

지구평균 온도 상승폭 2100년까지 1.5℃ 이내 제한

유럽과 미국 등 전세계 탄소세 부과하며 환경규제

제주, 탄소중립 위해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가속

국가적인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연계한 제주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체계적인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지정,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조기 도입해 2023년 예산부터 시범 운영한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하고, 각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주형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라일보는 올해 제주도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안을 점검하고 제주사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 등이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 있는지 등도 다룰 예정이다.



1



2



3



4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를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며 탄소중립을 추진한다. 1 시리니숲 2 태양광 시설 3 시범운영중인 자율주행차 4 전기차.

謹賀新年 Hopeful New Year

희망찬 새해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福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저희 삼화석유 임직원 모두는 더욱 최선을 다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제주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삼화석유

SK 三和石油株式会社

任職員 一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37 ☎ 741-2131